

Chi-Mei, 폴리스틸렌 100만톤 체제

ABS 50만톤 · PS 30만톤 등 · 중국 · 미국 시장 개척 주력

세계 최대의 ABS 기업인 대만의 Chi-Mei는 古雄 台南縣에 위치, 중국 본토를 중심으로 일대 공급 거점을 형성하고 있다.

생산제품은 ABS 연산 50만톤, PS 30만톤, PMMA 등 3개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

원료 Monomer는 古雄의 원료탱크에서 주입, 고속도로를 이용해 台南 본사로 수송, 완성된 제품은 콘테이너로 古雄까지 수송, 홍콩 · 중국으로 수출하고 있다. 수송 소요시간은 왕복 1시간으로 수송비용이 높다는 것이 단점이다.

올 상반기 실적은 수량기준으로 92년 동기대비 24% 증가, 금액기준으로 18% 증가, 이익으로는 7% 증가를 보였다. 이것은 당초 목표의 55% 달성률로서 하반기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목표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대만의 PS 수급현황		(단위 : M/T)	
구 분	수 량	전기대비	전년동기대비
전기 · 공업용	80,905	4	▽14
포 장 용	71,739	10	9
잡화용 · 기타	46,212	6	▽4
F S 용	44,386	5	0
내 수 계	243,242	6	▽4
수 출	50,979	37	42
합 계	294,221	11	2

세계적으로 화학기업이 불황을 보이고 있어 Chi-Mei의 호황에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Chi-Mei의 강점은 철저한 자동화와 재고관리에 뒷받침된 가격경쟁력이다.

생산제품의 2/3가 아시아로 수출되고 있고, 그 중에서 홍콩 · 중국본토가 3/4을 차지하고 있다. 홍콩으로는 레진이 굳기 전에 수송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고 특히 생산출하 체제정리, 수송체제의 합리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의 5000톤 주문에 대해 2시간내로 공급이 가능, 이러한 서비스는 어느 기업도 할 수 없을 뿐더

러 가격도 일본제품과 비슷한 수준으로 아시아 지역과 중국에서는 승부에 자신있다고 Chi-Mei는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신감을 배경으로 대형투자를 계획한 ABS는 93년 4/4분기에 65만톤, 94년 가을에는 80만톤으로 증설할 예정이고 95년에는 100톤 규모로 증설할 방침이다.

PS도 현재 30만톤에서 연속설비 15만톤을 증설(구 플랜트 5만톤은 스크랩), 40만톤 체제를 95년초에 증설할 예정이다. 특히, PMMA도 94년내로 증설할 방침이어서 ABS 100만톤, PS 40만톤에 PMMA를 더해 단일 폴리머공장으로는 세계 최대규모를 이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위해 Chi-Mei는 대만을 선두로 일대거점을 확립하고, 중국본토와 미국에 대형시장 형성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다.

중국 · 미국에서는 이미 공장입지를 확보, 중국에서는 연산 30만톤 규모의 ABS플랜트건설을 추진중에 있으며 거의 완성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동시에 Compound설비를 갖추계획도 가지고 있다.

또, 대만공장 입지의 취약점인 원료확보를 위해 해외기업과의 제휴도 검토중이다.

미국에서는 건설 계획이 예정보다 지연되고 있는데 ABS는 최고의 수지로 품질 · 가격 · 기능 어느 면을 보더라도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미국시장에 대한 도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PS는 전기 · 공업용 · 포장용 · 잡화용 · FS용 모두 증가하고 수출도 호조를 보이고 있어 4대 범용수지 중에서 가장 높은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